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9. 19.(수) / 총 1매(본문 1)
담당 부서	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	담당자	•과장 주종완, 사무관 원근영, 주무관 김로타 •☎ (044) 201-4137, 4141, 4140 •국장 이보영, 과장 김철웅, 주무관 서진원 •☎ (032) 740-2210, 2211, 2359
	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‘흑산공항 취항 비행기는 사고다발기’ ...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

□ 흑산공항 안전성 검토 의견 및 캐나다 항공사 면허취소 관련

- ATR-42의 사고(총46건)는 1987년도부터 30년간 발생했으나, 이 중에는 지상사고, 격납고 화재 및 항공기 운항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고건수를 근거로 항공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.

* (주)유신 오기석 상무는 종합토론회(9.7)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고 중 조사가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없다고 언급함

- 또한, 2017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ATR-42 사고는 항공기 이륙 전 디아이싱을 (기체상 결빙제거) 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,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는 항공기 운영 관리 규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ATR-42는 일반 제트기와 치명적인 사고 발생률(1백만 운항 당 0.5회)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, ATR-42의 안전도는 통상적으로 운항되는 제트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.

□ ATR-42 75대 주문 불분명 관련

- 항공기 리스업체인 Nordic Aviation Capital(NAC)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신 기종인 ATR-42-600을 75대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* 출처 : ATR社 보도자료('14.7.14)

□ 조종사 수급난 또는 자격부족 조종사 채용 우려 관련

- 매년 기장 4백명, 부기장 1천명의 조종인력이 신규로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있어 흑산 운항을 위한 조종사 수급은 문제없습니다.
- 기장·부기장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는 ATR-42가 도입될 경우 ATR-42의 조종기술과 운항자격이 필요합니다.

□ 안개 잦은 흑산공항에서 시계비행 문제 관련

- 흑산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는 조종사 및 관제기관 등과 기상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시계비행가능 기준을 충족했을 시에만 운항되므로, 흑산공항은 인근의 안개발생으로 인해 결항률이 타 공항과 차이날 수 있으나 안전도는 동일합니다.

< 보도내용 (세계일보, 9.19) >

- ◆ 흑산공항 취항 비행기는 ‘사고다발기’ ... 캐나다는 “면허 취소”
 - ‘흑산공항 안전성 검토의견서’에서 ATR-42 항공기 46건 사고 발생(총 276명 사망), '17.12월 캐나다 정부는 ATR-42 사고발생 항공사의 면허 취소 사항 확인
 - ‘노르딕 항공, ATR-42 75대 주문여부 불분명’, ‘조종사 수급난 또는 자격부족 조종사 채용 우려’, ‘안개 잦은 흑산공항에서 시계비행 문제’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원근영 사무관(☎ 044-201-41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